

달아오르는 종로

임종석 · 이낙연 · 황교안 등 출마설



내년 21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서울 종로가 될 전망이다. 총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하반기에 오르고 있다.

종로는 윤보선(제4대)·노무현(제16대)·이명박(제17대)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가 자리 잡고 있어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교두보로 꼽힌다.

현재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로 출마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만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먼저 교통정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격전지인 종로 지역 차기 총선 출마가 관례이지만 정 전 의장은 아직까지 재출마 의

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 전 실장 임정에서는 정치적 무게가 큰 중진 의원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데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 전 의장 역시 6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의장까지 지낸 상황에서 정치 후배와 자리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

이에 입 전 실장은 지난 3월 정 전 의장을 만나 종로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종로 출마 후보군으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총리가 거론된다.

최근 이 총리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권 안팎에서는 이 총리가 확실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리직을 내려놓고 총선에서 격전지인 종로 출마하거나 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아 당내 세력 구축을 할 것으로 관측

한다. 이 총리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종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총리는 명확하게 총선 출마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역할론에 대해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요구할 생각도 없다. 기회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칙적으로 정부·여당에 속한 한 사람이나 심부름을 시키면 그럴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밖에서는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달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 대표 역시 아직 총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이 총리와 입 전 실장과는 달리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에서 승리를 해 대권주자로 체급을

대선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입 전 실장과 황 대표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단초는 황 대표가 제공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에 한 입 대이파트 부녀회를 찾아 "우리는 나라 살리기에만 전념했지만 좌파 중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 거의 없다. 임종석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이나, 내가 그의 주임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입 전 실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간첩을 조작했던 일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별에 사는 사람들인가"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으니 공안검사 시절 인신에서 한결음도 진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그저 놀랄까만 하다"고 응수했다. 이후 입 전 실장은 황 대표의

대선 전초전 '정치 1번지'...여야 거물급 출마로 격전지 전망

임종석, 정세균 만나 종로 이사 의사 전해...출마 의지 표명

이낙연 총선역할론...종로 출마나 선대위원장 맡아 세력 구축

황교안, 종로 승리로 체급 키워야...부산·비례 출마 가능성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할 경우 정치행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여 의도에 입성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PK(부산·경남)를 되찾아오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부산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는 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내년 종로 선거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입 전 실장은 지난 1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황 대표는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길 바란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광주정신을 훼손하고 추방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공안통치 때나 있을 법한 인식이 스스로 없었는지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계개편 불 당긴 오신환

보수결집 · 제3지대 구축 속도 내나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5일 신인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향후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세력의 결집과 바른미래당 후보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간 제3지대 구축, 범진보세력 통합 등이다.

우선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하며 새 원내 사령탑 지위를 얻었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의 지지가 압도적 승리의 발판이었다.

현했다. 그는 "일단 당선은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오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보니, 바른미래당이 우향우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려고 국민 의당을 깬 것인가 싶고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오 원내 대표 당선 전부터 이미 이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승민-안철수 계의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과 통합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차기 총선에서 한국당이 기호 1번을 차지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오신환, 유승민-안철수계 연대 지지로 원내대표 선출
평화당서는 "바른미래 보수색채 짙어질 것" 우려 나와

이번 선거는 원내대표 선출 뿐 아니라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오 원내대표가 지도부 총 사퇴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그를 지지한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사실상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손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평화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의 보수성향이 더 짙어져 한국당과의 결합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흐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3지대 구축도 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유성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당일인 지난 13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오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 '우향우'라고 표

서라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치 공학자 관점에서 배지를 다는 법에 대한 혼수만 하는 것 같다" "의답" "희대의 이기꾼"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박 의원을 비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두고 보라. 저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될 지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 만큼 아프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어 가니까. 그 길 밖에 안 보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이달 중 의원 워크숍을 열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도부 즉각 퇴진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명운을 걸고 당을 지키겠다.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이제부터의 5월은 新노무현 찾는 전진의 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제부터의 5월은 우리가 새로운 노무현을 찾아 나가는 전진의 해가 발휘될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를 방문해 "우리 현대사에서 5월은 슬프고도 진인했던 달이다.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광주 5·18 참극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5월의 현대사는 슬프고도 진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연락이 왔다. 미국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두 분은 현재에 있으면서 서로 다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점이 많이 들어서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다 함께 문 대통령을 모시고 노무현 정신을 살려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 역사를 견인해 나갈 것을 약속하자"고 덧붙였다.

황교안 "기회 닿는대로 광주 찾아 위로할 것"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 기념일에 제창할 수 있는 노래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시집을 말하긴 어렵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도 참관로 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허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며 "다만 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

진곡'을 제창한 것과 관련해 그는 "우리 법에 보면 국가 기념일에 제창할 수 있는 노래가 정해져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간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념일에 제창하는 노래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16년 국무총리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가 기념일에 제창할 수 있는 노래 외에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아울러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